

# “어서와, 향교는 처음이지?”

## 전주대 온다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 행사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인문학플러스(HK+) 연구단(단장 변주승)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2018 인문주간 행사를 실시했다.

전주대학교와 전주향교,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성황리에 마쳤다.

“어서와, 향교는 처음이지?”에 참여한 담정정(20, 중국) 학생은 “한국에 온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의사소통도 힘들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는데, 같은 유학생 친구를 사귀고 한국문화를 체험 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백진우(한국어문학과 교수) 지역인문학센터장은 “이번 인문주간 행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유학생, 지역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역민이 인문학에 쉽게 다가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인문학플러스(HK+) 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18 인문주간 행사를 실시했다. 전주대학교와 전주향교,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된 이 행사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순창 농어촌공공,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오진휴)는 6일 오전 11시 지사 운영 대의원, 수리시설감시원 및 쌀전업농을 비롯해 지역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 대회의실에서 '2018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업인 유대 및 협력채널 강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 농업인 고객관리를 통한 수자원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공사 홍보를 상영, 물관리 현황, 지사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내고향 물해설가 김상욱목으로부터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오진휴 지사장은 "올해 극심한 폭염, 가뭄 및 태풍을 이겨내고 큰 피해 없이 흉년농사 및 안전영농을 이룬 운영대의원, 시설관리원 및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기상이변 등 가뭄대비 저수량 확보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완주 재난예방민간예찰단, 고산시장서 예찰활동 실시

완주군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간담회를 열고, 고산시장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선제적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돼 '내 지역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 아래 적극적인 지역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요령, 소화기사용법 등의 교육 및 민간예찰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고산비소시장으로 이동해 소방, 전기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민간예찰단은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해 신고 활동을 전개해 재난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안전 캠페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은 선제적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재난예방 예찰활동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본사 내방

▲조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 ▶▶ 알려드립니다 ◀◀

## 축! 결혼... 전주매일 교육부 장은성 차장

신랑: 장은성(장진섭 · 김복득씨 장남)군

신부: 전티심(전티미씨 장녀)양

일시: 10일(토) 낮 2시

장소: 전통생활문화체험관(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워크숍 개최

군산시는 최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영양교사, 생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사·생산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군산시의 푸드플랜 수립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공영화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군산지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주체인 영양교사와 생산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을 통해 안전?안심 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생산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통해 일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관계자간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자유총연맹 진안지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지회장 배병선)는 6일 제38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이항로 군수, 기관단체장, 유족,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의집에서 거행했다.

이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위령제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기도, 독경 등 종교의식에 이어 추념사 및 추도사, 조시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항로 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호국영령들이 조국에 바친 피와 땀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항상 그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겨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북시각장애인협 장수지회, 흰지팡이의 날 복지·체육대회

전북시각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회장 이봉애)는 6일 익산실내 체육관에서 제 38회 흰지팡이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수군지회를 비롯 14개 시·군 연합회가 모여 시상식과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화합을 다졌다.

이봉애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재능 의지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북교육청,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를 초청해 '편견 없는 마음어움'을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특수교육 이해 등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진안군, 고도원 국립산림치유원장 초청 특강

진안군은 6일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도원 국립산림치유원장 초청 특강을 군청 강당에서 실시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널리 알려진 고도원 원장은 그동안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난달 8일 국립산림치유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날 특강은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 예정인 지역권 산림치유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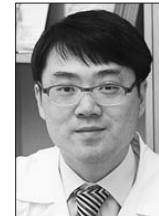
고도원 원장은 "치유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어울림, 사랑, 음식, 연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며 "지역권산림치유원이 명실상부 치유의 명소를 만들어져 치유 대중화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선인오 예수병원 신장내과과장 고희갑 저널에 연구결과 발표

예수병원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은 "세계적인 권위의 유명한 학술지 '고혈압 저널 (Hypertension Journal)' 11월호에 '고혈압 환자에서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의 손상을 소변내 세포의 소포체로 측정할 수 있다'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만성 콩팥병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고혈압에 의한 신장의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의 손상을 비침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인오 과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동안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 해외연수를 하는 동안 상기 주제에 대해 심층하고 논문을 발표했다. /김영태 기자



##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금은방·편의점 순찰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중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지난 5일 관내 강도·절도 등 범죄 취약지역 금은방 및 편의점에 대해 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순찰에서는 현금 다액취급업소를 순찰하며 잠금장치 파손여부와 비상벨 시스템을 시험작동 등 범죄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비상벨 작동요령 시범교육 및 강·절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경찰, 장애인 대상 성폭력·인권 교육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5일 오전 이백면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청소년과 공평옹계장이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사례중심교육과 인권 관련 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이용 시 주의사항과 SNS 문자를 통한 올바른 채팅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